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3년 9월 22일(금) 총 5매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담당자	• 공공건축팀 김상진 ☎440-4331 • 담당자 고헌주 ☎440-4332	
사진(이미지)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25년 열리는 '아시아건축사대회' 유치 성공!

- 대한건축사협회와 공동유치 노력 … 우리나라에서는 15년 만에 개최 -

- 22개 아시아 회원국과 아시아 건축문화 발전 논의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와 함께2025년 9월, 5일간 개최되는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인천 유치에 성공했다. 이 대회는 일본, 중국 등 아시아지역 22개국 국내·외 건축사 및 학생 등 약 15,000명이 참여한다.

아시아건축사대회(Asian Congress of Architects)는 1967년 뉴델리 개최를 시작으로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22개 아시아 회원국 건축사가 모여 학술프로그램 전시회, 학생 잼버리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아시아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교류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제3차 대회(1988년)를 서울에서, 제13차 대회(2008년)를 부산에서 개최한 이후, 15년 만에 3번째 개최된다.

인천시는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가 인천을 아시아 주요 국가에 알리는 것은 물론, 건축경기 부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200~300

억 원 가량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한류의 일부로 한국건축(K-건축)을 알려 국내 건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6월 대한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의 인천 공동 개최를 위해 협력해 왔다. 이번 유치를 위해 류윤기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과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등은 현재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건축사대회에 참가해 대한민국 인천 개최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는데 주력했다.

류윤기 국장은 “2025년 아시아건축사대회 인천 유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석정훈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건축사협회, 인천시건축사회에 감사드린다”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의 비전을 공유하고 인천의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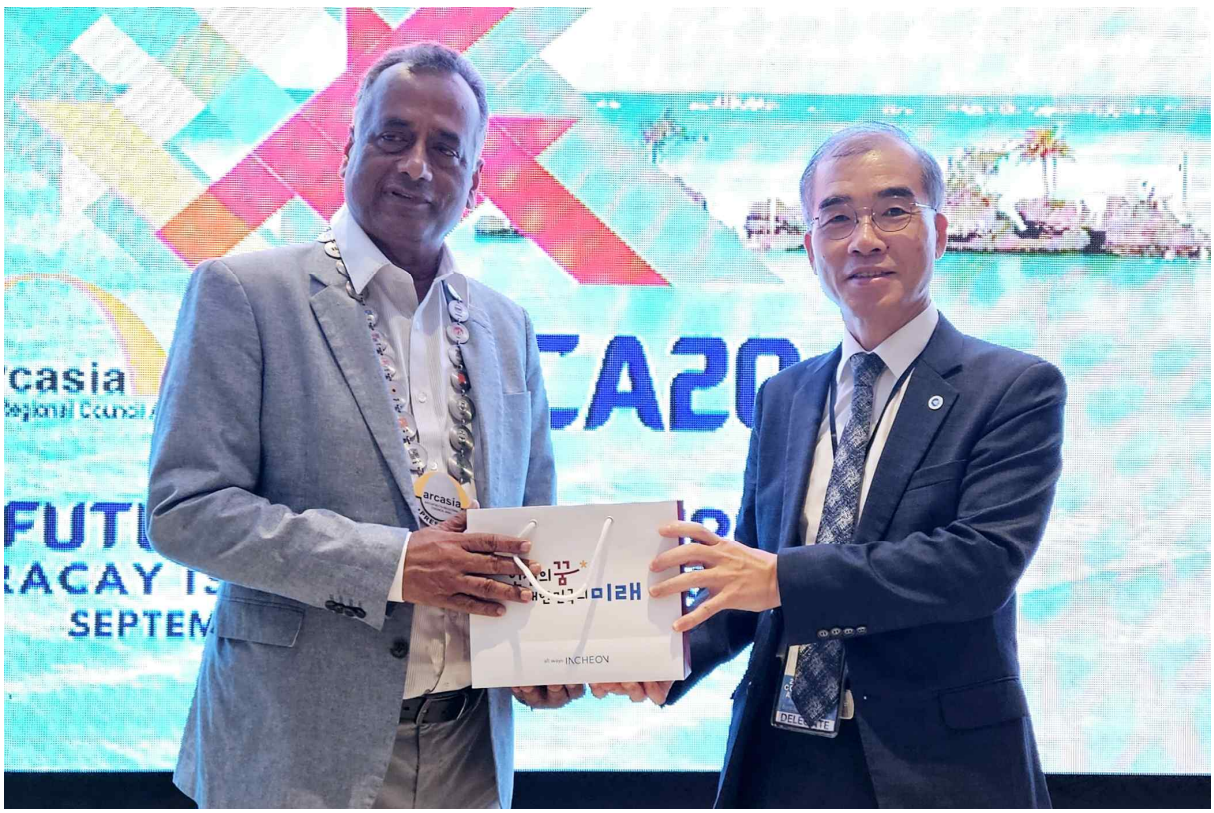
붙임 관련 사진 1부.

〈붙임 관련사진〉

2025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인천 유치 성공 기념사진(1)

2025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인천 유치 성공 기념사진(2)

2025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인천 유치 성공 기념사진(3)



인천 유치 성공 기념 사진